

박물관학예원에 대하여

권 계 순

1. 머리말
2. 전문직으로서의 학예원
3. 학예원의 활동
4. 맺음말

1. 머리말

박물관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그 박물관에서 중심이 되어 일하고 있는 學藝員의 존재조차 모른다.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의 內容이라든가, 심지어는 그런 직업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이러한 것은 박물관이 옛것, 진귀한것, 낡아서 쓸모없는 것만을 蒐集·陳列해 놓은 창고라는 그릇된 생각에서 나온것이며 이 박물관을 지키고 있는 별로 할일없는 이들(閑人)이란 인식이 박혀 있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아 19世紀까지 박물관은 대중들의 단순한 호기심에 편승해 진귀한 물건을 진열하는 곳이었으며 이곳에 근무하는 사람은 관리하고 지키는 임무를 맡은 자이었다. 학예원은 영어로는 Curator, Keeper, 불어로는 Consevateur, 獨語로는 Wissenschaft Beamte이다. Curator의 語源은 Curate이며, 이것은 관리자란 의미이며 불어의 Consevateur도 保守, 保管하는 사람이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世紀 이후 과학의 진보에 따라 專門化된 박물관이 증가하면서 그 獨自性을 활용한 사회교육기관의 하나로 인식되어 박물관활동을 행하는 專門家(Specialist)로 되어졌다. 語義에서 現在의 學藝員은 박물관에서 전문가이지만 어떤 내용을 가진 專門職이며 박물관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專門職으로서의 學藝員

ICOM憲章에 의하면 「박물관이라 함은 예술, 역사, 미술, 과학기술에 관한 수집품 및 植物園, 動物園, 水族館 등 문화적 價値가 있는 資料, 標本등을 각종의 방법으로 保存하고 研究하여 일반 대중의 교육과 오락을 위하여 공개 전시함을 目的으로 公共의 이익을 위해 이룩된 恒久的의 施設을 뜻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즉 博物館은 資料나 標本을 蒐集하고 保存하며 이것을 調査, 研究하고 展示하여 사람들에게 보임으로써 教育을 普及하는 社會教育機關으로서 주요시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박물관에서 資料를 단지 保管만 한다면 창고에 지나지 않고 調査, 研究만을 한다면 研究

所와 같으며 단지 敎育만을 실시한다고 하면 學校와 다를바 없다. 어디든지 제각기 기능, 목적, 방법이 있듯이 박물관에서도 특유의 기능이 존재한다. 그 방법은 직접자료(實物)와 간접자료(實物과 같은 역할을 하는 資料)를 구사해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새로운 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것을 創造하기 위해서 전문의 學藝員을 두어야 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 도서관에 司書가 있고 學校에 敎사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박물관에 학예원이 배치되는 것은 당연하며 단순히 박물관의 운영만을 위한 사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은 박물관의 목적에 따라 資料를 수집·정리하고, 資料를 매개로 하여 학술조사·연구를 하여 전 시를 통해 그 성과를 널리 보급하는 사람인 것이다. 다시말하면 학예원은 그 전문분야의 연구자이며, 박물관 敎育의 연구가이며 實施者인 것이다. 박물관에서의 學藝員의 理想型은

- ① 蒐集·保存에 대해서 專門實施者로서의 學藝員
- ② 蒐集·保存에 관한 研究員으로서의 學藝員
- ③ 資料 그 자체를 연구하는 研究學藝員
- ④ 敎育普及에 관한 研究를 하는 學藝員
- ⑤ 敎育普及을 實施하는 學藝員

으로 나눌수 있고 이것을 정리해 보면 적어도 과학기술자로서의 學藝員, 研究者로서의 學藝員, 敎育者로서의 學藝員으로, 최저 3명의 학예원을 박물관에 배치해 그 기능을 보다 원활히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3. 학예원의 활동

① 蒐集·保存活動

박물관에 있어 가장 중요한것은 말할것도 없이 박물관 활동이다. 그리고 이 활동의 중심은 학예원인 것이다.

먼저 蒐集活動을 하기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어떤 목적으로 모을까, 또 모인것을 어떻게 活用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 이 자료는 박물관의 성격에 따라 제각기 틀리기 때문에 박물관의 이념에 입각한 蒐集의 目的, 蒐集하려는 물건의 分布範圍, 蒐集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의 價値評價, 그리고 蒐集의 具體的方法을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蒐集하는 자료는 實物을 原則으로 하지만 實物의 구입이 어려울때는 模寫, 模型, 被寫 등을 사용한다. 實物은 일반적으로 골동적, 미술적 최소가치를 띄우는 것이지만 모사, 모형, 피사는 創造(復原)가치를 지니게 된다. 창조가치란, 예를 들면, 박물관에서 과거 人間의 歷史를 재현할때, 그들이 썼던 生活文化財(民俗文化財)의 구입이 아주 어려워 학예원의 연구성과에 의해, 그 가치가 되살아 나는 성질의 것이다. 다시말해서 학예원의 손으로 자료를 만들어 가치를 창조해 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료의 수집은 購入, 採集, 發掘, 寄贈, 寄託, 交換등이 있다.

- ① 購入—박물관의 年次계획을 세워 活用目的에 적합하게 구입을 한다.
- ② 採集, 發掘—아주 중요한 박물관 사업으로 박물관의 연구체제와 학예원의 학술연구와 관련

되고 교육적으로 반영되는 귀중한 것이다.

- ③ 寄贈 — 寄附行爲는 資料所有者의 마음에 따라 결정되지만 무조건적 기부가 바람직하며, 학예원은 수집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寄附받아야 된다.
- ④ 寄託 — 영구적, 반영구적, 일시적인 것이 있다.
- ⑤ 교환 — 박물관 성격에 따른 자료의 교환이 필요하다. 학예원은 박물관끼리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통해서 서구(西歐)와의 교환도 시도한다.

자료의 保存은 遺物施設을 정비하고 保存處置를 취해야 한다. 施設 즉 遺物庫, 遺物室, 遺物藏 出納상자, 整理상자, 運搬用具를 정비하고 遺物庫를 保存하기 위해 도난, 災害를 예방하고, 온도, 습도를 조절하며 光線, 光熱量을 조절하고 防虫害를 예방하며 유해(有害)가스, 공해를 예방해야 된다. 또 保存處置로는 표본상자속에 방충제를 넣어 保存加工하며 정기적인 통풍과 보존수리를 위한 乾操室, 加工修理室, 消毒室을 설치해 정기적으로 보존처리를 하며 修理는 科學전문 학예원이 담당해 加工, 復元을 한다.

학예원은 일정한 蒐集計劃하에 資料收集을 실시하며 蒐集은 박물관 운영상 영구소장되는 것이므로 遺物庫는 점차 증설가능한 설계를 세워야 되고 특히 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학예원을 두어 보존에 힘쓴다.

② 調查·研究活動

조사, 연구활동에는 크게 나누어 박물관 자료의 연구(자료보존과학적 연구, 자료 그 자체에 대한 연구), 박물관자료와 관람자를 일치시키는 일에 관한 연구가 있다.

- a. 자료의 보존과학적 연구 — 자료의 보존은 영구보존을 전제로 完全한 관리체제를 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서의 자료는 단순한 보존관리뿐만이 아니라 자료의 파손수리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 등의 인문과학계자료 및 자연과학계 자료에 관한 과학적 보존기술의 연구와 그 수리법 등에 적극적인 연구를 한다.
- b. 資料 그 자체에 대한 연구 — 자료는 質, 量과 함께 국민의 교육, 학술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자료 그것과 이것에 관련된 부분까지 연구하여 관람자의 이용을 돕는다. 특히 학예원은 관람자에게 鑑賞眼을 키워주기위해 공부해야 된다.

박물관 자료와 관람자를 일치시키는 일에 관한 연구는 박물관의 이용도에 관한 연구이기도 하다. 관람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통계조사를 해 來館의 動機와 목적을 알며, 박물관의 자료를 어떤식으로 보는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해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③ 教育·보급활동

박물관의 교육보급은 박물관 내외에 걸쳐 교육적인 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뜻한다. 말하자면 平生教育에 있어 市民大學의 역할, 학교교육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종의 서비스기관이다.

박물관을 일생에 단 한번 이용하는것이 아니라 영구히 이용하기 위해 사회와 인간생활 속에 필요한 것이 되지않으면 안된다. 그러기 위해서 박물관은 자료를 매개로 해 대중에게 서비스하는 것이며 이것은 전시의 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전시는 단순한 나열이 아니고 보는사람을 설득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학예원은 전시된 물건과 관람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노릇을 해야되는 것이다. 전시는 우선 전시장소부터 생각해 보면 室内 전시, 室外 전시, 移動 전시로 나눌수 있다.

실내전시는, 박물관에서 어떤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 자료에 대해 (研究) — 調査 — 蒐集 — 整理 — 學術的研究 — 展示란 과정을 거쳐 실시된다.

전시방법은 박물관의 규모에 따라 형태가 틀리지만 대략 資料의 配列方式, 展示資料의 形態로 나눌수 있다. 資料의 배열방식은 분류전시, 종합전시와 과제전시로 나눌 수 있으며 展示資料의 형태로는 固定展示, 動態展示, 生態展示로 나눌수 있다.

- a. 分類전시 — 전문가에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며 학교교육, 사회교육 분야의 학습의 초보로 자료를 제공해 주는 전시이다. 전문연구자에게는 그 자료의 특질을 파악하는데 많은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실물표본이 주체가 된다.
- b. 綜合전시 — 종래의 박물관에서는 인문과학제자료와 자연과학제자료를 수장하고 전시하므로 이것을 종합전시라 했다. 그러나 오늘날 박물관은 미래사회를 지향하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데 관심을 두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종합전시는 인간생활의 물질적·정신적 이익, 생존에 관한 자료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모형, 판넬, Diorama를 필요로 한다.
- c. 課題전시 — 테마를 선정하고 그 연구성과를 전시에 반영시키는 것으로 박물관의 전시의 특질을 나타내는 특별전시라는 것이다. 이 특별전시는 박물관의 연구 조직속에서 계획적으로 진행되어 그 성과를 근거로 전시의 기획을 입안하고 전개하는 것이다.
- d. 固定전시 — 일반적 전시 방법 중의 하나다.
- e. 動態전시 — 제 1차 자료로 불가능한것을 제 2차 자료로 즉 動的인 전시방법을 써서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動力에 대한 설명으로 기계등을 설치하는것 등이다.
- f. 生態전시 — 동물 및 식물, 생물의 생태를 표현하는 것이다. 동물에는 박제, 식물에는 복제(複製); 합성수지를 사용하고 있다.

展示의 요건은 우선 目的이 철저해야 되며 전시자료를 精選해 체계적, 조직적으로 전시하며 배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며 관람順路와 전시장소를 합리적으로 구분해 설비의 정리를 충실히 하고 전시자료의 開設계획과 실시방식을 확립한다. 전시장은 보기쉽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존할수 있으며 光線, 조명을 고려해 이동이 가능한 유리케스를 마련하고, 展示의 해설은 1장에 20자정도로 입장자가 들어와 곧 볼 수 있는 위치에 놓는다.

교육보급활동에는 전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람자 일반에게 박물관의 도서실, 연구실을 이용해 하고 강습회, 연구회, 영사회 등을 개최하며 출판, 광고활동도 있다.

- a. 圖書室, 研究室의 公開利用 — 일반에게 공개함으로써 일반인의 연구에 도움을 줄수 있다.
- b. 講習會, 研究會, 講演會, 映寫會, 視聽覺教育의 개최 — 연구회를 조직하여 교재를 설정해 특정테마에 대해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강연회, 영사회를 정구적으로 열며 학예원은 週 2회정도 모여 전시자료에 대한 학습을 하고 기술강습회를 열어 학예원이 지도

를 담당해 탁본, 고문서, 수집보관, 정리의 기술을 학습시키며 박물관 이용자와 조직적 결합으로 박물관 목적에 맞는 교육활동을 한다.

- c. 出版·弘報活動—전문적 학술분야의 연구는 각 연구부의 조사보고서, 학술연구서, 학술연구 개요, 주장자료집성(목록, 도록) 학술연구에 관한 출판물, 학술연구발표회, 학술연구강연회 등의 도서출판, 학술부문의 계몽서 등의 출판활동과 그의 각종의 집회를 통한 홍보이다. 또 박물관의 교육보급에 관한 홍보는 박물관 자료의 해설서, 연구참조서, 圖錄, 案内書, 그림엽서 그의 인쇄물에 의한 것과 텔레비, 라디오, 유선방송, 신문, 잡지등 보도기관을 통해 행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실외전시는 야외에서 행해지는 것으로 내용은 별로 실내전시와 틀리지 않는다.

이동전시는 박물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교통이 불편한 지역까지 박물관을 이동해 전시교육활동을 전개하며 영사회, 연구회, 공개강좌를 그지역 주민에게 실시한다. 그 외에 야외의 발굴조사, 견학회, 채집회, 관찰회등을 개최해 일반인이 스스로 참가해 체험할 기회를 주고 학예원은 이들을 지도한다.

이상 박물관의 학예원이 하는 중요한 활동을 열거했지만 학예원은 폭넓은 교양을 소지하며 학문적 기초를 가진 연구가로서, 실시자로서 자기의 연구성과를 전시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발표해 국민교육을 행하는 막중한 직책인 것이다.

4.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학예원은 수집·보관, 조사·연구, 교육보급등 박물관 활동의 중심이 되며, 박물관과 관람자와의 매개체 역할을 하며, 또 박물관의 전문적인 학예원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지식, 기능에도 뛰어난 교육활동가이어야 한다. 더우기 박물관 이용자에게 신뢰를 얻고 사회의 봉사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이렇게 박물관에서 가장 중요한 전문직으로서의 학예원은 우리나라에 극소수이며, 앞으로의 박물관 증대와 함께 그 양성은 시급히 요청되는 바이다. 大學기관에 의뢰해 학예원양성 과정(인문계, 자연계)을 두고, 앞으로 박물관학과의 설치도 모색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① 이난영著 「박물관학 입문」 1972. 12 三和出版社
- ② 加藤有次著 「博物館學序論」 1975. 9. 雄山閣刊
- ③ 日本博物館協會編 「博物館學入門」 1956. 1. 理想社 刊
- ④ 倉田公裕 「博物館學概論(試論)」 (日本博物館協會編 「博物館研究」 第42卷第4号 1970. 2
- ⑤ 倉田公裕 「博物館學概論(試論)—學藝員이란 무엇인가?」 (日本博物館協會編 「博物館研究」) 第43卷第2号 1970. 7
- ⑥ 倉田公裕 「博物館學概論(試論)—博物館에 있어서 調査·研究란 무엇인가?」 (日本博物館協會編 「博物館研究」 第43卷第4号 1971. 1)
- ⑦ 立教大學 社會教育課程編 「Museum」 9號, 18号
- ⑧ 유네스코本部編 「The organization of Museums—practical advice」
國際博物館會議 日本委員會 翻譯 「博物館組織—그 實際的 어드바이스」 1965. 3
- ⑨ 關野雄 오차노미즈大學 「博物館學講座」 1977, 1978年